

‘색’과 ‘빛’ 계열 합성 명사의 형태·의미론적 고찰¹⁾

이은섭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어교육과)

1. 서론

본고는 현대 국어 색채어 중에서 ‘파란색, 병아리색, 회색’ 등의 ‘-색’ 구성 합성 명사들과, ‘갯빛, 초록빛’ 등의 ‘-빛’의 구성 합성 명사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소박한 형태·의미적 관찰이다. 상식선상에서 우리는 일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할 수 있겠다.

- (1) 색채를 나타내는 합성어 중에는 ‘-색’ 계열과 ‘-빛’ 계열이 존재한다.²⁾
- (2) 이 두 계열의 합성어 중에서 ‘-색’과 결합하는 선행 어근과 ‘-빛’과 결합하는 선행 어근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본고는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기술한다. (1)에 관해서는 국어 색채 표현에서 ‘-색’ 계열과 ‘-빛’ 계열의 합성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2)에 대해서는 ‘-색’ 계열과 ‘-빛’ 계열의 선행 어근의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합성어가 지니는 형태와 의미적 특징들을 추출한다. 두 계열 모두에 출현하는 어근과 이들 중 어느 한 쪽에만 출현하는 어근을 관찰함으로써 두 형식의 형태·의미적 양상을 구명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색채어 합성 명사의 종합적인 면모를 개관하고, 그 중 ‘-색’이나 ‘-빛’ 형식의 합성어가 갖는 의의에 대하여 기술한다.

3장은 ‘-색’ 합성 명사와 ‘-빛’ 합성 명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이다. 우선 3.1에서는 명사 ‘색’과 ‘빛’이 어근의 자격으로 형성에 참여한 합성어의 양상을 목록을 통해 제시한다. 자료는 21세기 세종 계획의 말뭉치 800만 어절을 주로 이용하여 추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2005년도 5월 18일자로 제시된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의 ‘KS규격으로 완성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의 보도 자료도 이용한다. 또한 『우리말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을 참조하여 이들에 기술된 사항들을 논의 전반에 걸쳐 이용하도록 하겠다.³⁾

3.2에서는 3.1에서 추출한 목록을 검토하여 우리가 확보한 합성어의 선행 어근의 성격을 고찰한다. 우선 형식적인 차원에서 ‘색’과 ‘빛’에 모두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 ‘색’과만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 ‘빛’과만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을 분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작업을 통해 각각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형태·의미론적 특징을 밝힌다.

4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2. 색채어 합성 명사의 형태론적 양상

2.1. 색채어 합성 명사의 구성 방식

본 장에서는 ‘색’과 ‘빛’이 합성어 형성에 참여한 형식들을 포함하여 색채어 합성 명사의 문법적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기본적으로 색채어 표현들 중 명사 성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1) 본고는 2005년 6월에 열린 한국어문교육연구회의 제 158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논평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사의를 표한다.

2) 본고에서의 ‘-색’이나 ‘-빛’의 표기는 이들이 접미사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 어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임시적으로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어근의 자격을 갖는다.

3) 각각 『우리』, 『표준』, 『연세』로 약칭하겠다.

주로 파생어 기원의 ‘검정, 하양, 파랑, 노랑, 빨강’ 등의 고유 명사와 ‘분홍, 군청, 초록’ 등의 한자어들이다.⁴⁾ 전자가 ‘색’이나 ‘빛’과 결합한 합성어 형식은 사전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⁵⁾ 후자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색’이나 ‘-빛’ 형식의 색채명이 지나는 준말로 처리되고 있다.⁶⁾ 그렇다면 이제 색채 표현 중에 합성 명사가 어떠한 구조와 의미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KS규격으로 상정된 색채 합성 명사의 목록을 제시해 보자.

(1) KS규격으로 상정된 색채 합성 명사의 목록

- ㄱ. 가죽색, 개나리색, 겨자색, 계란색, 고동색, 구리색, 국방색, 굴색, 금발색, 노른자색, 딸기색, 당근색, 대나무색, 대추색, 라벤더색, 라일락색, 레몬색, 멜론색, 떡색, 모래색, 모카색, 목탄색, 물색, 루비색, 마나나색, 바다색, 박하색, 밤색, 백옥색, 벚꽃색, 벽돌색, 병아리색, 복숭아색, 비둘기색, 사과색, 사과이어색, 산호색, 살구색, 상록수색, 상아색, 석류색, 수박색, 썩색, 시멘트색, 연두색, 연미색, 연지색, 옥색, 올리브색, 우유색, 은회색, 자두색, 잔디색, 장미색, 점토색, 쥐색, 진달래색, 진주색, 참대래(키위)색, 청동색, 청포도색, 초콜릿색, 카키색, 캐러멜색, 커피색, 코코아색, 크림색, 토마토색, 팔색, 포도색, 포도주색, 풀색, 하늘색, 해바라기색, 호두색, 호박색(식물), 호박색(광물)홍색, 홍차색, 황토색, 흰눈색
- ㄴ. 보랏빛, 분홍빛, 자줏빛, 초록빛
- ㄷ. 꽃분홍, 노란분홍, 노란연두, 노란주황, 빨간주황, 흰분홍
- ㄹ. 로즈핑크, 베이비핑크, 베이지 그레이, 새먼 핑크, 세룰리안 블루, 스카이 그레이, 에머랄드 그린, 올리브 그린, 와인 레드, 인디고 블루, 카네이션 핑크, 코발트 블루, 파스텔 블루, 파우더 블루, 프리시안 블루, 피콕 그린⁷⁾

(1ㄱ)과 (1ㄴ)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색’ 계열과 ‘-빛’ 계열의 합성어들이다. 그리고 (1ㄷ)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어우러진 색채어 합성 명사들이며, (1ㄹ)은 외래어 혹은 외국어의 예로 국어 합성 명사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들이다. 눈에 띄는 사항은 KS 규격의 범위 내에서는 ‘-색’ 계열의 합성어가 ‘-빛’ 계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빛’이 ‘색’에 비해서 색채 표현에 있어서 간접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의 KS 규격의 색채명은 그야말로 실용적인 성격의 색채 표현이므로 당연히 전형적인 색채 관련 어휘인 ‘색’이 색채 개념에 있어서는 덜 직접적이고 덜 관여적인 ‘빛’보다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일단 (1ㄱ)부터 살펴보고 (1ㄴ)은 나중에 ‘-색’ 계열과 ‘-빛’ 계열의 논의를 진행할 때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1ㄱ)은 ‘-색’ 계열의 합성어로, 이들은 ‘색’에 선행하는 어근의 형태론적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 ‘-색’ 계열의 색채어 합성 명사의 형태적 양상

- ㄱ. 단일 어근+ 색 : 가죽색, 개나리색, 겨자색, 계란색, 고동색, 구리색, 국방색, 굴색, 딸기색, 당근색, 떡색, 모래색, 물색, 바다색, 박하색, 밤색, 병아리색, 복숭아색, 비둘기색, 사과색, 산호

4) 본고에서는 ‘검정’ 등의 고유어 색채 명사들이 파생의 과정을 겪었음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논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이병기(2002:279)에서 이러한 어형의 출현 시기가 늦춰진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간략한 언급이지만 흥미할 만하다. 색채어에 관한 통시적 논의는 주로 이현희(1985)와 구본관(1998)에 의존하기로 한다. 그리고 ‘분홍’ 류의 한자어 단어는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한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각각 별개의 형태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항상 각각 개별적으로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지는 않으므로(홍색, 청색, 녹색/*분색, *군색, *초색), 이들을 전형적인 합성어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5) 예외적으로 『연세』에서는 검정색과 파랑색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와 『표준』에는 위의 계열에 속하는 색채어 합성 명사가 하나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6) 역시 『연세』에서만 이들이 준말이 아닌 일반 명사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한자어가 표상하는 의미적 명정성을 고려하여, 굳이 ‘색’이나 ‘빛’과 결합하지 않더라도 색채의 의미를 표시하는 명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관점을 사전 편찬자들이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7) 띄어쓰기는 보도 자료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색, 살구색, 상아색, 석류색, 수박색, 쪽색, 연두색, 연지색, 옥색, 우유색, 자두색, 잔디색, 장미색, **점토색**, 쥐색, **진달래색**, 진주색, 팔색, 포도색, 풀색, 하늘색, 해바라기색, 호두색, 호박색(식물), 호박색(광물)홍색, **황토색**

ㄴ. 파생 어근+ 색 : 노른자색, 연미색, 참다래색,

ㄷ. 합성 어근+ 색 : 금발색, 대나무색, 백옥색, **벚꽃색**, 벽돌색, 상록수색, 은회색, 청동색, 청포도색, 포도주색, 홍차색, **흰눈색**

ㄹ. 외래어(외국어) 어근+ 색 : 라벤더색, 라일락색, 레몬색, 멜론색, 모카색, 루비색, 바나나색, 사파이어색, 시멘트색, 올리브색, 초콜릿색, 카키색, 캐러멜색, 커피색, 코코아색, 크림색, 토마토색

(2ㄱ)은 ‘색’ 앞에 결합하는 어근이 단일하거나, 혹은 공시적으로 부류를 판정하기가 어렵지만 구체적이고 단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의미의 어근들이다. (2ㄱ)의 예들 중 굵은 글자로 나타난 것들은 사실 단일 어근으로 보기가 모호한 예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하나의 명칭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잠정적 차원에서 단일 어근에 포함시켰다.

(2ㄴ)에서 우리는 어근의 파생 양상이 지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성에 참여하는 파생 어근은 그 파생 양상이 비생산적이며, 한정된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들과 어울린다. 접두사 ‘연-, 참-’이나 접미사 ‘-자’는 각각 접사 자신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자유롭게 어근에 결합하지 못하고 일정한 의미론적 제약을 보이는 듯하다.

(2ㄷ)에서는 우선 ‘벚꽃색’의 ‘벚’이 주목할 만한데, 이 형식은 ‘버찌’의 준말로서 명사의 지위를 갖는다고 사전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벚꽃’을 합성어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흰눈색’의 ‘흰눈’은 색채 형용사 ‘회-’의 관형사형과 ‘눈’이 결합한 형식으로 용언의 활용형이 합성 명사의 복합 어근 ‘흰눈-’의 형성에 참여한 예라 볼 수 있다.

(2ㄹ)은 외래어나 외국어 어근이 ‘색’과 결합한 예들이다. 이들이 온전히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의 자격을 획득하였는지의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형태적인 차원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검증 작업이 요구된다.

2.2. ‘색’과 ‘빛’의 사전 기술

지금까지 우리는 색채어 합성 명사의 형태론적 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기술하였다. 색채어 합성 명사의 형성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색채 형용사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색채어 합성 명사의 대표 부류로 간주되기에는 우리의 논의가 아직도 선부른 감이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소위 ‘-색’ 계열과 ‘-빛’ 계열의 합성 명사가 실제 KS 규격으로 인정된 색채명보다 훨씬 많은 어휘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출현 빈도도 균일한 양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 두 계열의 합성 명사가 색채어와 색채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색’과 ‘빛’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3) ‘색’의 사전적 의미

ㄱ. 『우리』 : ①빛을 받아 물건들이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따위로 나타내는 것. ②서로 구별되는 부류나 특성. ③‘여색1’의 준말, ‘색사2’의 준말, ‘색정’의 준말.

ㄴ. 『표준』 : ①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 현상.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물감 따위의 안료. ②같은 부류가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 ③색정이나 여색, 색사(色事) 따위를 뜻하는 말.

ㄷ. 『연세』 : ①빛을 받아 물체가 나타내는 빛깔. ②여자의 성적 매력. 여자와의 성적 관계. ③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특색이나 경향을 뜻함.⁸⁾

8)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의미의 ‘색’이 각각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3ㄷ)은 필자가 임의적으로 묶어서 제시한 것이다.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사전이 전부 동일하게 ‘색’의 세 가지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색채 표현과 관련된 설명이 모두 첫 번째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대략 ‘빛의 작용으로 대상의 색상과 그 이외의 자질(정확히는 명도와 채도)이 가시화되는 현상’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의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빛’이 현상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색’이라는 명사가 표상하는 바는 ‘빛’이라는 물리적인 대상물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색’과 ‘빛’의 관계를 암시해주는 사항이다.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는 의미적 차원과 형태적 차원에 모두 걸친 문제이다. 바로 ‘연세’에서의 ‘색’에 대한 기술이다. 이 사전에서는 ‘색’을 단어인 ‘색’과 접미사인 ‘-색’으로 구별하여, ‘색’의 용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김창섭(1996:37)에서 ‘방’을 다룬 방식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방’이 전형적인 주거 공간으로서의 대상에서 ‘구두+방, 만화+방’의 ‘가게’로서의 단어 형성 전용 요소인 ‘방’으로 화했다는 설명이 개진되어 있으며, 이 ‘방’이 접미사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전형적인 자립 명사인 원래의 ‘방’과 강한 의미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색채 관련의 ‘색’과, ‘특색, 특성, 경향’ 정도의 의미를 갖는 ‘색’은 사실 그 유연성 면에서 주거 공간의 ‘방’과 가게의 ‘방’이 보여주는 양상과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가게를 의미하게 된 ‘방’은 물리적으로 좁은 공간을 표상한다는 차원에서는 주거 공간인 ‘방’과의 유연성이 강하다. 그러나 주거 공간의 ‘방’이 자립적인 반면, 가게를 의미하는 ‘방’은 항상 선행 형식과 결합하여 출현하는 전형적인 합성어 형성 전용 요소이다. 즉 두 ‘방’은 의미적인 유연성은 강하게 유지하지만, 그것이 통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느냐, 그렇지 않고 형태론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느냐의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색채 관련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색’과 ‘특색, 특성, 경향’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색’도 ‘방’의 경우와 평행하게 따져볼 수 있겠다. 전자의 ‘색’은 어느 대상이 ‘빛’의 작용을 통해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이지만, 후자의 ‘색’은 일단 ‘빛’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의미적 유연성을 상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방’의 경우에 비해서 후자의 ‘색’은 비자립적 양상이 더욱 강하여서 단독으로 문장에 실현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근거로 하여 『연세』의 접미사 ‘-색’의 설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우리 논의에서 접미사 ‘-색’이 실현된 파생어들은 제외될 것이다.

이제 ‘빛’의 사전 기술을 살펴볼 차례이다.

(4) ‘빛’의 사전적 의미

- ㄱ. 『우리』 : ①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밝혀 주는 물질 현상. ②드러나는 보람이나 자랑. ③표정이나 태도. ④자연의 기운이나 현상. ⑤바탕이나 본바탕.
- ㄴ. 『표준』 : ①시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한다. ②물체가 광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나타내는 빛깔. ③표정이나 눈, 몸가짐에서 나타나는 기색이나 태도. ④무엇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⑤찬란하게 반짝이는 광채. ⑥희망이나 영광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ㄷ. 『연세』 : ①해, 달, 전등, 불 따위에서 나오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밝게 해 주는 물리적 현상. ②물체가 광선을 받아들이거나 되비쳐서 내는 빛깔. ③걸음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인상. ④ 반짝거리는 기운. ⑤눈에 띄게 뛰어난 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점.

『우리』에서의 ‘빛’의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색채와 관련된 의미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밝혀 주는 물질 현상’이다.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자연의 기운이나 현상. 계절의~. 봄빛. 가을빛.’이라는 기술에서 나타나며, 이는 ‘색’과 동의어 관계에 놓

인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표준』의 기술은 ‘빛’을 ②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뜻풀이에서의 ‘빛깔’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색채 개념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빛’과 ‘색’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세』의 경우도 뜻풀이의 차원에서 볼 때 『표준』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사전의 기술 양상을 검토해보면, 우선 세 사전 모두가 ‘빛’의 첫 번째 의미로 ‘가시적인 물리 현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후에 색채와 동의 관계를 맺는다는 기술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 대상인 ‘색’과 ‘빛’의 상호 관련성은 사전의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⁹⁾

특기할 사항은 ‘빛’의 의미 기술이 ‘색’의 의미 기술보다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우리가 암시한 바 있었던, 색채 개념에 대한 ‘색’과 ‘빛’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즉, 우리는 앞에서 ‘빛’이 ‘색’보다는 색채의 개념에 있어서 덜 직접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빛’이 직접적으로 색채 개념과 연관을 맺는 것이 아니라, 색채 개념을 성립시키는 재료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 것이다. ‘빛’은 색채의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색채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색채(色, color)의 전제가 되는 자연 현상(光, light)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색채어의 형성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색채 관련인 ‘색’보다는 덜 활발한 양상을 보일 것이지만, 사전의 다양한 의미 기술을 고려할 때, 이들이 색채와 무관한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는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색’ 합성 명사와 ‘-빛’ 합성 명사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겠다.

3. ‘-색’ 합성 명사와 ‘-빛’ 합성 명사

3.1. ‘-색’ 합성 명사와 ‘-빛’ 합성 명사의 목록

우선 ‘색’과 ‘빛’이 어근으로 참여한 합성어들의 목록을 세종 계획 코퍼스에서 다음과 같이 추출해 보았다.¹⁰⁾

9) ‘색’과 ‘빛’의 관련성은 국어사적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色 빛 식’(新增類合 上5a), ‘빛 色’(국한화어) 등의 용례를 통해 문헌이나 자서류에서 두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 ‘우리’의 ‘옛말과 이두’ 편에 기술된 ‘빛’항과 ‘빛’항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자.

ㄱ. ‘빛’과 ‘빛’은 현대 국어의 ‘빛’, 즉 ‘光’의 의미를 지닌다.(光 빛 광(훈몽-초, 하:1), 光 通稱 빛(한칭 1:2), 스텐왕턴(四天王天) 데석뻘턴(帝釋梵天)의 비출 듣줍고사...(월곡 106), 光은 비치라(월석, 어제 월인석보서:1))

ㄴ. ‘빛’과 ‘빛’은 모두 현대 국어의 ‘색’과 동의 관계로도 파악된다.(빛과 소리와...六塵이라 흐느니(월석 2:15), 顏色 通稱 빛...怒色 성년 빛(한칭 6:9-10), 色은 비치오(월석, 어제 월인석보서:1), 땃 비즈란 새의 즐기논 뜨들 보노라(山光見鳥情)(두해-초 7:11) 등)

이상의 사항을 놓고 볼 때, 역사적으로도 ‘빛’은 ‘光’과 ‘色’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빛’과 ‘색’이 동의어로 사용된 용례가 상당수 발견되므로 현대 국어적인 차원에서 ‘빛’이 ‘색’에 비해 색채에 대해 덜 직접적이라는 우리의 논의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적 차이, 즉 ‘빛’이 ‘光’과도 직접 관련을 맺지만, 반대로 ‘색’이 ‘光’과는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빛’이라는 물리적 존재를 전제하고 나서야 ‘색(채)’이라는 물리적 현상 혹은 존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는 부인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10) <표 1>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색’ 앞에 분포하는 모든 어근 형식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nng는 일반 명사, nnp는 고유 명사, nr은 수사, xpn은 체언 접두사, xr은 어기, etm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sn은 숫자, ss는 문장 부호를 뜻한다. 이는 임흥빈 외(2002:9-10)을 참고할 것.

<표 1>

KCS I

'색'의 선행 결합 요소								
횟수	빈도	항목	횟수	빈도	항목	횟수	빈도	항목
30	10.45%	천연/nng + 색/nng	2	0.70%	장식/nng + 색/nng	1	0.35%	낮/nng + 색/nng
26	9.06%	외복/nng + 색/nng	2	0.70%	사/nr + 색/nng	1	0.35%	땅/nng + 색/nng
18	6.27%	ㄴ/etm + 색/nng	2	0.70%	자연/nng + 색/nng	1	0.35%	꽃/nng + 색/nng
15	5.23%	얼굴/nng + 색/nng	2	0.70%	진달래/nng + 색/nng	1	0.35%	나무/nng + 색/nng
11	3.83%	보호/nng + 색/nng	2	0.70%	쭈/nng + 색/nng	1	0.35%	5/sn + 색/nng
11	3.83%	삼/nr + 색/nng	2	0.70%	낙엽/nng + 색/nng	1	0.35%	7/sn + 색/nng
11	3.83%	하늘/nng + 색/nng	2	0.70%	금지/nng + 색/nng	1	0.35%	-/ss + 색/nng
10	3.48%	무/xpn + 색/nng	2	0.70%	바탕/nng + 색/nng	1	0.35%	가지/nng + 색/nng
7	2.44%	지방/nng + 색/nng	2	0.70%	3/sn + 색/nng	1	0.35%	겨울/nng + 색/nng
7	2.44%	/ss + 색/nng	2	0.70%	유사/xr + 색/nng	1	0.35%	8/sn + 색/nng
6	2.09%	와인/nng + 색/nng	1	0.35%	유행/nng + 색/nng	1	0.35%	9/sn + 색/nng
6	2.09%	피부/nng + 색/nng	1	0.35%	황금/nng + 색/nng	1	0.35%	석고/nng + 색/nng
6	2.09%	노랑/nng + 색/nng	1	0.35%	프랑스/nnp + 색/nng	1	0.35%	아이스크림/nng + 색/nng
5	1.74%	중간/nng + 색/nng	1	0.35%	호박/nng + 색/nng	1	0.35%	삼원/nng + 색/nng
5	1.74%	전통/nng + 색/nng	1	0.35%	입술/nng + 색/nng	1	0.35%	상류/nng + 색/nng
5	1.74%	오/nr + 색/nng	1	0.35%	크리스마스/nng + 색/nng	1	0.35%	예의/nng + 색/nng
4	1.39%	금/nng + 색/nng	1	0.35%	털/nng + 색/nng	1	0.35%	오렌지/nng + 색/nng
4	1.39%	국방/nng + 색/nng	1	0.35%	지정/nng + 색/nng	1	0.35%	앵도/nng + 색/nng
3	1.05%	정치/nng + 색/nng	1	0.35%	초콜릿/nng + 색/nng	1	0.35%	연두/nng + 색/nng
3	1.05%	오행/nng + 색/nng	1	0.35%	치마/nng + 색/nng	1	0.35%	반대/nng + 색/nng
3	1.05%	머리/nng + 색/nng	1	0.35%	주조/nng + 색/nng	1	0.35%	베/nng + 색/nng
3	1.05%	은/etm + 색/nng	1	0.35%	풀/nng + 색/nng	1	0.35%	물감/nng + 색/nng
3	1.05%	기본/nng + 색/nng	1	0.35%	자갈/nng + 색/nng	1	0.35%	민족/nng + 색/nng
3	1.05%	계란/nng + 색/nng	1	0.35%	저고리/nng + 색/nng	1	0.35%	살/nng + 색/nng
3	1.05%	커피/nng + 색/nng	1	0.35%	평복/nng + 색/nng	1	0.35%	살구/nng + 색/nng
3	1.05%	iq/sl + 색/nng	1	0.35%	포도주/nng + 색/nng	1	0.35%	부적/nng + 색/nng
2	0.70%	배경/nng + 색/nng	1	0.35%	관복/nng + 색/nng	1	0.35%	산/nng + 색/nng
2	0.70%	4/sn + 색/nng	1	0.35%	군복/nng + 색/nng	286	100.00%	
2	0.70%	아이보리/nng + 색/nng	1	0.35%	계열/nng + 색/nng			
2	0.70%	일본/nnp + 색/nng	1	0.35%	곤룡포/nng + 색/nng			

먼저 위의 표에서 색채 관련 표현이 아닌 항목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색’ 형식 중 색채를 직접 지칭하거나 색채의 이름 자체를 명명하는 표현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엄격한 관점에서 본다면 색채어로 간주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지시하는 대상은 색채 그 자체이거나, 어떠한 대상이 지니고 있는 색채적 속성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일단 우리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우리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형식들은 표 안에 진하게 표시된 항목들이다. 이들은 색채의 개념과는 무관한 예들인 것이다. ‘지방색, 일본색, 프랑스색, 상류색, 예의색, 민족색, 크리스마스색’은 각각 ‘-풍의’, ‘정치색’은 ‘-하는 성향’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색’이 결합한 파생어들이므로 색채 관련 합성 명사가 아니다. 또한 ‘색’의 선행 형식이 문장 부호인 경우에는 ‘색’이 자립 명사로서 문장에 출현한 것이므로 역시 합성어 색채 명사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표 1>에서는 ‘색’의 선행 형식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만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다.¹¹⁾

<표 1-1>

관형사형 성분과 결합한 ‘색’		
횟수	빈도	항목
11	52.38%	희/va ... ㄴ/etm + 색/nng
4	19.05%	호리/va ... ㄴ/etm + 색/nng
3	14.29%	붉/va ... 은/etm + 색/nng
1	4.76%	잡/va ... ㄴ/etm + 색/nng
1	4.76%	누렁/va ... ㄴ/etm + 색/nng
1	4.76%	뽀얗/va ... ㄴ/etm + 색/nng
21	100.00%	

<표 1-1>의 어휘들은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사형 어미 ‘-ㄴ/은’과 결합하여 합성어 형성에 참여한 예들이다. 이들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코퍼스에서 ‘흐린색, 고운색, 뽀얗색’ 등이 통사 구성, 즉 ‘관형어’와 ‘명사’의 순으로 통합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합성 명사로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을 합성 명사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재될 가능성이 커서 어휘 고도 제약이 지켜질 수 없으며, 이들이 단순히 띄어쓰기의 오류에 기인하여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위의 표에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색채어 ‘흰색, 붉은색, 누런색’만을 합성 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

마지막으로 ‘무색’과 같이 접두사가 선행 성분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 파생어들과 ‘4색’과 같이 선행 성분이 아라비아 숫자로 실현된 항목들도 색채어 합성 명사의 목록에는 포함

11) 익명의 논평자는 이러한 형식의 출현 빈도가 예상보다 적다는 점을 이유로 코퍼스 추출 과정이나 분석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검은색’과 ‘파란색’ 등이 누락되었음을 의심의 근거로 언급하였다. 코퍼스를 언어 자료로서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직관만을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는 견지에서 우리는 코퍼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실 논평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명이 가능하다. 우선 ‘-ㄴ/etm+ 색/nng’의 구성이 반드시 많은 출현 빈도를 보여야 할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맑은 색’은 가능하지만, ‘*씩은 색’은 불가능하다. 이는 두 요소가 속성상 서로 상충되지 않거나, 의미 자질적인 측면에서 부합할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모든 관형사형이 ‘색’에 선행하는 어근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출현 빈도의 수가 많고 적음은 본 논의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검은색’과 ‘파란색’의 누락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이미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합성어로서, 코퍼스의 성격상 이들의 형태론적 구조가 태깅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nng’, ‘파란색/nng’로 태깅되어 있다.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제 형태와 의미 차원에서 색채와 무관한 형식들을 걸러내고, 2.1의 (1ㄱ, ㄴ, ㄷ)에서 살핀 KS규격으로 상정된 색채 합성 명사의 목록을 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색’ 합성 명사 목록을 얻을 수 있다.

(1) ‘-색’ 합성 명사의 목록

가죽색, 가지색, 개나리색, 겨울색, 겨자색, 계란색, 계열색, 고동색, 곤룡포색, 관복색, 구리색, 국방색, 군복색, 굴색, 금색, 금발색, 금지색, 기본색, 꽃색, 나무색, 낙엽색, 낮색, 노랑색,¹²⁾ 노른자색, 누런색, 당근색, 대나무색, 딸기색, 땅색, 머리색, 떡색, 모래색, 물색, 물감색, 바다색, 바탕색, 박하색, 반대색, 밤색, 벚꽃색, 배경색, 백옥색, 베색, 벽돌색, 병아리색, 보호색, 복숭아색, 부적색, 붉은색, 비둘기색, 사색, 사과색, 산색, 산호색, 살색, 살구색, 삼색, 삼원색, 상록수색, 상아색, 석고색, 석류색, 수박색, 쭈색, 아이보리색, 아이스크림색, 앵도색, 얼굴색, 연두색, 연미색, 연지색, 오색, 오렌지색, 오행색, 옥색, 와인색, 우유색, 유사색, 유행색, 은색, 은회색, 의복색, 입술색, 자두색, 자갈색, 자연색, 잔디색, 장미색, 장식색, 저고리색, 전통색, 점토색, 구조색, 중간색, 쥐색, 지정색, 진달래색, 진주색, 참대래색, 천연색, 청동색, 청포도색, 초콜릿색, 차마색, 커피색, 털색, 팔색, 평복색, 포도색, 포도주색, 풀색, 피부색, 하늘색, 해바라기색, 호두색, 호박색(식물), 호박색(광물), 홍색, 홍차색, 황금색, 황토색, 흰색, 흰눈색 - 총 123개

이제 ‘빛’이 참여하여 형성된 합성어의 목록을 제시하자. 아래 <표 2>는 <표 1>의 ‘-색’ 합성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2>



12) ‘노랑색’ 류, 소위 ‘까망색, 하양색, 파랑색, 빨강색’ 등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대신 ‘노란색’ 류의 어휘들과 ‘노랑’ 류의 색채명 어휘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연세’에서는 예외적으로 몇몇 어휘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어 화자들이 이러한 형식의 어휘들을 자주 사용하는 국어 현실이 반영된 기술로 보인다.

‘빛’의 선행 결합 요소								
횟수	빈도	항목	횟수	빈도	항목	횟수	빈도	항목
309	23.64%	불/nng + 빛/nng	2	0.15%	다홍/nng + 빛/nng	1	0.08%	투명/nng + 빛/nng
268	20.51%	눈/nng + 빛/nng	2	0.15%	구리/nng + 빛/nng	1	0.08%	춥/nng + 빛/nng
126	9.64%	달/nng + 빛/nng	2	0.15%	황혼/nng + 빛/nng	1	0.08%	칼/nng + 빛/nng
40	3.06%	금/nng + 빛/nng	2	0.15%	석류/nng + 빛/nng	1	0.08%	전깃불/nng + 빛/nng
39	2.98%	낮/nng + 빛/nng	2	0.15%	연분홍/nng + 빛/nng	1	0.08%	도토리/nng + 빛/nng
38	2.91%	은/nng + 빛/nng	2	0.15%	노랑/nng + 빛/nng	1	0.08%	단풍/nng + 빛/nng
37	2.83%	얼굴/nng + 빛/nng	2	0.15%	비취/nng + 빛/nng	1	0.08%	백열/nng + 빛/nng
30	2.30%	장미/nng + 빛/nng	2	0.15%	자주/nng + 빛/nng	1	0.08%	번개/nng + 빛/nng
28	2.14%	ㄴ/etm + 빛/nng	2	0.15%	바다/nng + 빛/nng	1	0.08%	보랏/nng + 빛/nng
25	1.91%	별/nng + 빛/nng	2	0.15%	아마/nng + 빛/nng	1	0.08%	봄물/nng + 빛/nng
21	1.61%	새벽/nng + 빛/nng	2	0.15%	주홍/nng + 빛/nng	1	0.08%	눈물/nng + 빛/nng
17	1.30%	분홍/nng + 빛/nng	2	0.15%	홍시/nng + 빛/nng	1	0.08%	복사꽃/nng + 빛/nng
16	1.22%	황금/nng + 빛/nng	2	0.15%	호박/nng + 빛/nng	1	0.08%	복숭아/nng + 빛/nng
15	1.15%	은/etm + 빛/nng	2	0.15%	청자/nng + 빛/nng	1	0.08%	백금/nng + 빛/nng
14	1.07%	초록/nng + 빛/nng	2	0.15%	우유/nng + 빛/nng	1	0.08%	마호가니/nng + 빛/nng
14	1.07%	회색/nng + 빛/nng	2	0.15%	포도/nng + 빛/nng	1	0.08%	머리/nng + 빛/nng
13	0.99%	물/nng + 빛/nng	2	0.15%	피부/nng + 빛/nng	1	0.08%	뚜껑/nng + 빛/nng
13	0.99%	쪽/nng + 빛/nng	2	0.15%	에베탈드/nng + 빛/nng	1	0.08%	레이저/nng + 빛/nng
13	0.99%	/ss + 빛/nng	1	0.08%	구름/nng + 빛/nng	1	0.08%	떡말기/nng + 빛/nng
13	0.99%	'/ss + 빛/nng	1	0.08%	주둥/nng + 빛/nng	1	0.08%	목/nng + 빛/nng
10	0.77%	태양/nng + 빛/nng	1	0.08%	진초록/nng + 빛/nng	1	0.08%	똥/nng + 빛/nng
10	0.77%	보라/nng + 빛/nng	1	0.08%	진홍/nng + 빛/nng	1	0.08%	명주/nng + 빛/nng
9	0.69%	젓/nng + 빛/nng	1	0.08%	진보라/nng + 빛/nng	1	0.08%	무지개/nng + 빛/nng
7	0.54%	전등/nng + 빛/nng	1	0.08%	진주/nng + 빛/nng	1	0.08%	와인/nng + 빛/nng
7	0.54%	하늘/nng + 빛/nng	1	0.08%	강물/nng + 빛/nng	1	0.08%	우산/nng + 빛/nng
6	0.46%	가을/nng + 빛/nng	1	0.08%	▲/sw + 빛/nng	1	0.08%	연초록/nng + 빛/nng
6	0.46%	연두/nng + 빛/nng	1	0.08%	하현달/nng + 빛/nng	1	0.08%	옥수수/nng + 빛/nng
5	0.38%	갈색/nng + 빛/nng	1	0.08%	팥죽/nng + 빛/nng	1	0.08%	꽃/nng + 빛/nng
5	0.38%	진달래/nng + 빛/nng	1	0.08%	가사/nng + 빛/nng	1	0.08%	금은/nng + 빛/nng
5	0.38%	풀/nng + 빛/nng	1	0.08%	형광/nng + 빛/nng	1	0.08%	전조등/nng + 빛/nng
4	0.31%	연보라/nng + 빛/nng	1	0.08%	황토/nng + 빛/nng	1	0.08%	꼭두서니/nng + 빛/nng
4	0.31%	주황/nng + 빛/nng	1	0.08%	흙/nng + 빛/nng	1	0.08%	잉크/nng + 빛/nng
4	0.31%	상아/nng + 빛/nng	1	0.08%	화롯불/nng + 빛/nng	1	0.08%	날개/nng + 빛/nng
4	0.31%	적양/nng + 빛/nng	1	0.08%	진흙/nng + 빛/nng	1	0.08%	녹색/nng + 빛/nng
4	0.31%	노을/nng + 빛/nng	1	0.08%	검정/nng + 빛/nng	1	0.08%	순금/nng + 빛/nng
4	0.31%	불/nng + 빛/nng	1	0.08%	개암나무/nng + 빛/nng	1	0.08%	비로드/nng + 빛/nng
3	0.23%	납/nng + 빛/nng	1	0.08%	-/ss + 빛/nng	1	0.08%	새/mm + 빛/nng
3	0.23%	피/nng + 빛/nng	1	0.08%	감/nng + 빛/nng	1	0.08%	승복/nng + 빛/nng
3	0.23%	살/nng + 빛/nng	1	0.08%	초생달/nng + 빛/nng	1	0.08%	야광/nng + 빛/nng
3	0.23%	봄/nng + 빛/nng	1	0.08%	춧/mm + 빛/nng	1	0.08%	야수/nng + 빛/nng
3	0.23%	떡/nng + 빛/nng	1	0.08%	청동/nng + 빛/nng	1	0.08%	쭉/nng + 빛/nng
2	0.15%	가지/nng + 빛/nng	1	0.08%	초승달/nng + 빛/nng	1	0.08%	안개/nng + 빛/nng
2	0.15%	오렌지/nng + 빛/nng	1	0.08%	털/nng + 빛/nng	1306	100.00%	

앞의 ‘-색’ 합성 명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표 2>의 ‘-빛’ 형식에 있어서도 색채와 무관한 형식들을 걸러내어야 한다. 그런데 ‘빛’은 그 자체가 ‘색’과 같은 직접적인 색채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의미도 ‘색’과 동의의 경우부터 전혀 의미적 유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계열의 합성 명사들이 ‘-색’ 계열의 합성 명사들과는 달리 상당수가 색채와 무관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색’ 계열의 합성 명사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합성 명사를 ‘-빛’ 계열의 합성 명사가 보일 것이라는 것도 짐작이 가능하다.¹³⁾ 형태론적으로 합성어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들이 <표 2>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었다. 자립 명사 ‘빛’이 통사 구성에 단독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문장

1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색’과 ‘-빛’ 구성의 합성 명사들 중 동일한 선행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합성 명사야말로 전형적인 색채 표현일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부호의 경우와, ‘첫빛, 새빛’과 같이 관형사가 결합한 것들은 합성 명사의 부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¹⁴⁾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색채어와 비색채어의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2) 가. 희미한 불빛
- ㄱ. 노란 불빛
- ㄴ. 썩썩한 눈빛
- ㄷ. 새파란 눈빛
- ㄹ. 밝은 달빛
- ㅁ. 하이얀 달빛

(2)는 <표 2>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불빛, 눈빛, 달빛’이 경우에 따라서 색채 어일 수도, 색채어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ㄱ), (2ㄴ), 그리고 (2ㄷ)은 각각 색채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색채 표현이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다. ‘불빛, 눈빛, 달빛’이 색채어인 경우는 이들 합성 명사들이 갖는 속성 중 색채가 문제될 경우이다. 이러한 양상은 ‘금빛, 오렌지빛’ 등의 다른 합성 명사가 색채적인 속성으로만 인식되어서, 색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색채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의 ‘-빛’ 구성만을 색채 관련의 합성 명사로 보고자 한다.¹⁵⁾

또한 <표 2>에서도 ‘빛’의 선행 형식이 관형사형 어미로 나타난 예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 2-1>

관형사형 성분과 결합한 ‘빛’		
횟수	빈도	항목
14	32.56%	푸르/va ... ㄴ/etm + 빛/nng
9	20.93%	검/va ... 은/etm + 빛/nng
6	13.95%	붉/va ... 은/etm + 빛/nng
5	11.63%	노랑/va ... ㄴ/etm + 빛/nng
3	6.98%	희/va ... ㄴ/etm + 빛/nng
3	6.98%	멀/va ... ㄴ/etm + 빛/nng
2	4.65%	누르/va ... ㄴ/etm + 빛/nng
1	2.33%	빨강/va ... ㄴ/etm + 빛/nng
43	100.00%	

<표 2-1>에서는 ‘먼빛’을 제외하고는 모두 색채어 합성 명사가 실현되고 있다. 이들도 우리가 뒤에 제시한 색채어 합성 명사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먼빛’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형어 성분이 명사를 수식하는 통사 구성으로 보아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표 2>에서 얻을 수 있는 색채어 합성 명사와 전 절의 KS 규격으로 상정된 색채 합성 명사의 예 (1ㄴ)을 합하면 다음과 같은 ‘-빛’ 구성의 합성 명사

14) ‘-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합성 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물론 본고의 입장이 ‘관형어 명사’의 통사 구성이 어휘화를 겪어서 합성 명사로 화할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이러한 구성으로 출발한 합성 명사 어휘 전부를 통사 구성에 속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15) 물론 ‘낮빛’과 같이 색채어와 비색채어의 용법을 구별하기 모호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안색(顔色)’과 같이 동일한 의미의 한자어의 구성 양상을 참조할 수 있다. 각주 9)에서 보았듯이 역사적으로는 ‘빛’이 ‘색’과 동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얼굴의 색’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넓은 의미에서 색채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직접적으로 색채어의 지위를 갖는 ‘-색’ 계열과는 달리 ‘-빛’ 계열의 어휘들은 색채와 관련을 맺는 경우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색채어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록이 도출된다.

(3) ‘-빛’ 합성 명사의 목록

가지빛, 갈색빛, 감빛, 개암나무빛, 검은빛, 검정빛, 구리빛, 금빛, 금은빛, 꽃빛, 납빛, 낮빛, 노란빛, 노랑빛, 노을빛, 녹색빛, 놀빛, 누른빛, 다홍빛, 단풍빛, 도토리빛, 뽕빛, 마호가니빛, 떡딸기빛, 떡빛, 명주빛, 무지개빛, 목빛, 바다빛, 백금빛, 백열빛, 보랏빛, 복사꽃빛, 복숭아빛, 분홍빛, 붉은빛, 비로드빛, 비취빛, 빨간빛, 살빛, 상아빛, 석류빛, 석양빛,¹⁶⁾ 순금빛, 승복빛, 썩빛, 아마빛, 야광빛, 에머랄드빛, 연두빛, 연보라빛, 연분홍빛, 연초록빛, 오렌지빛, 옥수수빛, 와인빛, 우유빛, 은빛, 잉크빛, 자주빛, 장밋빛, 젓빛, 주홍빛, 주황빛, 진달래빛, 진보라빛, 진주빛, 진초록빛, 진홍빛, 진흙빛, 쪽빛, 청동빛, 청자빛, 초록빛, 투명빛, 팔죽빛, 포도빛, 푸른빛, 풀빛, 핏빛, 하늘빛, 형광빛, 호박빛, 홍시빛, 황금빛, 황토빛, 황혼빛, 회색빛, 흙빛, 흰빛 - 이상 90개

이상의 자료를 통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본고는 직접적으로 색채 표현임이 드러나는 ‘-색’ 구성의 선행 성분의 수가 ‘-빛’ 구성의 선행 성분에 비하여 그 수도 적고 출현 양상이 다양하지 못하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색’ 표현이 ‘-빛’ 표현에 비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색채를 지칭할 것이므로 색채 관련 대상과는 강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빛’ 표현은 ‘-색’ 표현에 비해 색채 표현 이외의 다양한 대상과 결합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 제시한 각각의 목록에서 증명되고 있다.

우선 <표 1>에서는 ‘-색’ 구성이 총 286회 출현하였고, 그 중에서 선행 성분은 89개의 형식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 38개의 형식이 2회 이상의 출현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색채 관련 합성 명사의 개수는 71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으로 지정된 것들과 합하면 총 123개의 색채어 합성 명사가 추출된다. 선행 성분 89개 중에서 71개의 어근이 색채 표현으로 간주되거나 색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색채 표현 중에서 어근 ‘색’이 실현된 ‘-색’ 형식이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색채 표현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표 2>에서는 ‘-빛’ 구성이 총 1306회 출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선행 성분은 130개의 형식이 검색되었다. 그리고 이들 130개의 형식 중에서 2회 이상의 출현 횟수를 보이는 것은 60개의 형식이다. ‘-색’ 구성에서의 어근의 개수가 89개였음을 감안할 때, 훨씬 많은 어근들이 선행 성분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색채와 관련된 합성 명사의 형성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어근은 KS규격의 것들을 합한다 하여도 90개이다. 앞의 ‘-색’ 계열의 합성어 형성에 참여한 어근 중 대부분의 어근이 색채와 관련된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그 비율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우리는 ‘-빛’ 형식의 색채 표현이, 비록 색채와 관련이 깊은 어근 ‘빛’이 실현되었지만, ‘-색’ 형식보다는 색채에 관하여서는 간접적이고 덜 관여적인 표현이라고 간주한다.

한편 두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이 포함된 선행 어근들의 존재가 시사하는 바도 주목을 요한다. ‘-ㄴ/은’은 ‘색’이나 ‘빛’을 수식하는 통사적 구성의 요소이거나, 단어 형성에 참여한 활용형의 일부인 형태적 구성 요소이다. ‘-ㄴ/은’은 ‘-색’ 구성에서는 21회, ‘-빛’ 구성에서는 43회 나타난다. 이러한 ‘-ㄴ/은’의 높은 출현 횟수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존재하는 색채를 전부 독자적으로 명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언중들은 ‘색’이나 ‘빛’을 어떤 대상의 명칭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무궁무진한

16) ‘노을’, ‘상아’, ‘석양’, ‘피’ 등과 같이 그 대상의 대표적인 속성을 언중들이 색채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명과 ‘빛’의 결합형을 색채어 합성 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상으로 무궁무진한 색채를 지칭하게 되는 과도함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용언(주로 형용사)의 활용형을 ‘색’이나 ‘빛’과 결합한 형식을 사용하여 색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활성화 과정을 거쳐 어휘화된다면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형식들은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 쓰임이 지속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2. ‘-색’과 ‘-빛’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이 갖는 특성

3.1.에서 우리는 ‘색’과 ‘빛’이 어근의 자격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 합성 명사들의 목록을 추출하였다. 물론 이 목록에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들과, 사전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퍼스의 성격상 누락된 어휘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합성 명사들은 송철의(1992:154)나 김창섭(1996:18-19)적인 의미에서 잠재어로 인정되는 어휘들이다. 한편 사전에 등재되었음에도 누락된 어휘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거나 보충하지 않는다. 현재 본고가 이들 어휘를 빠짐없이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3.1에서 제시한 어휘들만을 대상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색’이나 ‘빛’과 결합하는 어근들의 형태·의미적 양상들을 살핍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 절에서 추출한 어휘 목록들의 선행 어근이 보여주는 출현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색’과 ‘-빛’ 계열의 색채어 합성 명사의 성격과 관계에 대해 천착하고자 한다. 코퍼스상에서 ‘색’과만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 ‘빛’과만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 ‘색’과 ‘빛’에 모두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들의 양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형태론적 차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이한 점만 지적하고 주로 의미적 차원에서 기술하겠다.

(4) ‘색’과만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

가죽, 개나리, 겨울, 겨자, 계란, 계열, 고동, 곤룡포, 관복, 국방, 군복, 꺾, 금발, 금지, 기본, 나무, 낙엽, 낮, 노른자, **누런**, 당근, 대나무, 땅, 머리, 모래, 물, 물감, 바탕, 박하, 반대, 밤, 벚꽃, 배경, 백옥, 베, 벽돌, 병아리, 보호, 부직, 비둘기, 사(四, 死), 사과, 산, 살구, 삼(三), **삼원**, 상륙수, 석고, 수박, 아이보리, 아이스크림, 앵도, 얼굴, **연미**, 연지, 오(五), 오행, 옥, 유사, 유행, **은회**, 의복, 입술, 자두, 자갈, 자연, 잔디, 장식, 저고리, 전통, 점토, 주조, 중간, 쥐, 지정, 참다래, 천연, 초콜릿, 치마, 커피, 털, 팔, 평복, 포도주, 피부, 해바라기, 호두, **홍**, 홍차, 흰눈

(4)의 항목 중에서 특별히 형태적인 면에서 주목을 끄는 사항들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누런’과 같이 어감 표현을 위한 형태 내적 변화에 해당하는 예가 발견될 뿐이다.¹⁷⁾ 단 ‘은회색’의 ‘은회’는 그 형태론적 양상이 특이하다. 이는 [[은회]색]의 형태 구성이 아니다. 이는 [은[회색]]으로 분석되므로, 합성 명사 ‘회색’과 어근 ‘은’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 명사이다. 이러한 양상은 ‘연미색’의 ‘연미’나 ‘삼원색’의 ‘삼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 속성을 근거로 하여 이들을 분류해 보자.¹⁸⁾ 이들을 크게 추상적 대상과 구상물로 나눈다. 추상적 대상은 시간, 공간, 색, 수, 행위, 기타로 나누어서 각각의 어근

17) 그리고 ‘사색’의 ‘死’나 ‘홍색’의 ‘紅’과 같은 한자어 일음절 어근의 존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들의 형태론적 지위를 어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접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관례에 따라 이들을 어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상론하지 않겠다.

18) 본고에서의 의미 분류는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편(2002:112-113)의 ‘세종 전자사전 의미부류 체계도’에 근거하여 논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필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하여 수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상물> 중의 음식물은 <음식>이라는 항목 하에 <음료>, <떡>, <빵>, <발효식품>, <요리>의 세부 항목을 두고 있으나, 우리가 추출한 자료 중에 ‘초콜릿’과 같은 경우는 어느 항목에 포함을 시켜야 할 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예들을 감안하여, 우리는 <음식>이라는 항목을 그대로 수용하되, 그 세부 항목을 더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추상적 대상물의 경우, 추상성의 정도를 척도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색’과 같은 항목은 가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기타 항목의 여러 어근들의 의미는 가시적일 수 없고, 주로 개념화에 관련된 면이 강하다. 또한 ‘수’를 지시하는 항목도 엄밀하게는 규약(convention)에 의거한 개념화와 관련이 깊다.

을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구상물은 다시 신체 부위, 동물, 식물, 광물, 음식, 신체착용물, 재료 성분, 도구, 기타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으로 나누어 어근을 분류한다. 어근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언급할 것이다.

(5) ‘색’ 결합 어근의 의미적 분류

ㄱ. 추상적 대상 - 27개

- ① 시간 : 겨울, **배경**
- ② 공간 : 바탕, **배경**, 중간
- ③ 색 : **노른자**, 누런, **아이보리**, 연미, 은회, 홍
- ④ 수 : 삼(三), 사(四), 오(五)
- ⑤ 행위 : 국방, 금지, **반대**, 보호, 사(死), 주조(主潮), 지정
- ⑥ 기타 : 계열, 기본, **반대**, 삼원, 오행, 유사, 유행, 전통, 중간, 천연

ㄴ. 구상물 - 64개

- ① 신체 부위 : **가죽**, 금발, 낫, 머리, 얼굴, 입술, **털**, 피부
- ② 동물 : 병아리, 비둘기, **아이보리**, 쥐
- ③ 식물 : 개나리, **겨자**, 나무, 낙엽, 대나무, 박하, 벚꽃, 상록수, 잔디, 해바라기
- ④ 광물 : 고동, 백옥, 석고, 옥
- ⑤ 음식 : **겨자**, 계란, 꿀, **노른자**, 당근, **물**, 밥, 사과, 살구, 수박, 아이스크림, 앵도, 자두, 참다래, 초콜릿, 커피, 팝, 포도주, 호두, 홍차
- ⑥ 신체착용물 : 곤룡포, 관복, 군복, 연지,¹⁹⁾ 의복, 장식, 저고리, 치마, 평복
- ⑦ 재료 성분 : **가죽**, **모래**, **물**, 베, 벽돌, 석고, **자갈**, 점토, **털**
- ⑧ 도구 : 물감, 부적
- ⑨ 기타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 : 땅, **모래**, **물**, 산, **자갈**, 자연, 흰눈

의미적 분류 작업에서는 지시 영역이 불분명한 어근들이 문제가 된다. 추상적 대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전부 관련되어 있는 ‘배경’(시간적 배경/공간적 배경), ‘행위’와 ‘기타’에 포함된 ‘반대’(행위로서의 반대/입장으로서의 반대), 해석에 따라, 시간과 공간, 입장이나 정도성의 개념에 모두 걸리는 ‘중간’, 가시적인 흐름으로 파악될 가능성의 ‘유행’ 등이 의미 구분에 따른 정밀한 분류를 어렵게 한다. 심지어 ‘아이보리’의 경우는 추상적 대상의 ‘색’과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구상물의 ‘동물’과도 관련이 있으며, ‘노른자’ 역시 ‘색’과 ‘음식’ 양 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들 역시 의미 분류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²⁰⁾

구상물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된다. ‘신체 부위’와 ‘재료 성분’에 해당하는 ‘가죽, 털’, ‘식물’과 ‘음식’에 모두 해당되는 ‘겨자’, ‘재료 성분’과 ‘기타 자연물’에 속하는 ‘모래, 자갈’, 심지어는 ‘음식’, ‘재료 성분’, ‘기타 자연물’에 두루 걸치는 ‘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항목에 동시에 해당되는 어근들이 많다.

이러한 의미 분류의 어려움이 다수 발견되지만, 일단 잠정적으로나마 의미의 분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색’과 결합하여 색채어 합성 명사를 형성하는 어근들의 의미 양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어근과 후행 어근이 지니는 의미적 유연성과는 별도로, 후행 어근 ‘색’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어근과 결합하여도 색채어나 색채 관련의 합성 명사를 형성하는 힘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부

19) ‘연지’의 경우는 화장품으로 보고, 신체착용물의 일종에 포함시켰다.

20) (5)의 추상적 대상에 속하는 어근들과의 결합형이 진정한 색채어인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색채 표현에는 특정한 색채를 지칭하는 경우와 상황의존적으로 색채와 관련된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바탕색, 배경색, 보호색, 전통색, 유행색, 천연색’ 등은 후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어서 색채명과 같은 전형적인 색채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빛’ 구성과의 변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탕-, 배경-, 보호-, 전통-, 유행-, 천연-’ 등의 어근이 ‘빛’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위의 ‘-색’ 구성이 상황의존적으로 색채 개념과 관련을 맺지만,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결국 상황에 따른 특정한 색채라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더 논의할 ‘빛’ 계열의 합성 명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6) ‘빛’과만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

갈색, 감, 개암나무, **검은**, 검정, 금은, 납, **노란**, 노을, **녹색**, 놀, **누른**, 마호가니, 명주, 무지개, 목, 다홍, 단풍, 도토리, 똥, 백금, 백열, 보라, 복사꽃, 분홍, 비로드, 비취, **빨간**, 석양, 순금, 승복, 아마, 야광, 에머랄드, 연보라, 연분홍, 연초록, 옥수수, 잉크, 자주, 젓, 주홍, 주황, 진보라, 진초록, 진홍, 진흙, 쪽, 청자, 초록, 투명, 팔죽, **푸른**, 피, 형광, 홍시, 황혼, **회색**, 흙

우리 자료에서 ‘빛’과만 결합한 어근들의 수는 59개이다. (6)에서 발견되는 형태적인 특징은 (4)에서 살핀 ‘색’ 결합 어근과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선행 어근 중에서 ‘갈색, 녹색, 회색’ 등의 ‘-색’ 형식의 복합 어근이 결합한다는 점이다. 이는 ‘-빛’ 계열의 합성 명사가 ‘-색’ 계열의 합성 명사에 비해 색채어 형성에 덜 관여적임을 의미하는 사항이다. 후에 의미론적 고찰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색’ 형식의 복합 어근과 결합하는 ‘-색’ 계열의 합성 명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색]색]의 구성에서 ‘색’의 반복에 의해 도출되는 잉여성을 거부하는 일종의 형태론적인 제약의 양상이다. 그리고 의미론적으로도 후행 어근 ‘색’이 충분히 강력한 색채 관련의 합성 명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색’ 형식과 같은 직접적인 색채 관련 합성 어근과 결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6)의 어근들에서는 색채어 형용사의 활용형, 즉 관형사형의 선행 어근들이 다수 존재한다. ‘검은, 노란, 누른, 빨간, 푸른’이 그러한 예들이다. 역시 ‘빛’이 ‘색’보다 색채어 형성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색채어 형성에 참여하는 형용사들은 모두 색채어에 국한된다.²¹⁾

이제 의미적인 면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의미 분류는 ‘-색’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 ‘빛’ 결합 어근의 의미적 분류

ㄱ. 추상적 대상 - 23개

- ① 시간 : 없음
- ② 공간 : 없음
- ③ 색 : 갈색, 검은, 검정, 노란, 녹색, 누른, 다홍, **백열**²²⁾, 보라, 분홍, 빨간, 연보라, 연분홍, 초록, 자주, 주홍, 주황, 진보라, 진초록, 진홍, 초록, 푸른, 회색
- ④ 수 : 없음
- ⑤ 행위 : 없음
- ⑥ 기타 : 없음

ㄴ. 구상물 - 37개

- ① 신체 부위 : **피**
- ② 동물 : **피**
- ③ 식물 : 개암나무, **마호가니**, 단풍, 복사꽃, **아마**, **옥수수**, **쪽**
- ④ 광물 : 금은, 납, 백금, 비취, 순금, 에머랄드
- ⑤ 음식 : 감, 목, 도토리, **옥수수**, 젓, 팔죽, 홍시
- ⑥ 신체착용물 : 승복
- ⑦ 재료 성분 : **마호가니**, 명주, 도토리, 비로드, **아마**, **쪽**
- ⑧ 도구 : 잉크, 청자
- ⑨ 기타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 : 노을, 놀, 무지개, 단풍, 똥, **백열**, 석양, 야광, 진흙, 투명, 형

21) 간단한 예를 들어 이 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뿌연 색’이나 ‘미색’의 경우는 색채어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뿌연 빛’은 색채 표현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미빛”의 경우는 아예 인정될 수 없다.

22) ‘백열’은 형태론적으로 한자어 ‘白熱’에서 ‘회다’라는 의미가 드러나고, 실제로 사전에서도 ‘물체가 백색광에 가까운 빛을 낼 정도로 온도가 몹시 높은 상태. 또는 그 열’로 뜻을 풀고 있어 색채와 관련이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추상적 대상의 ‘색’ 항목에, 구상물의 기타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 항목에 전부 포함시킨다.

광, 황혼, 흙

앞의 ‘색’ 결합 선행 어근과 마찬가지로 ‘빛’에 선행하여 결합하는 어근들도 어느 한 하위 항목에만 해당하지 않고, 복수의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빛’과 결합하는 선행 어근들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추상적 대상에서 바로 드러난다. 바로 이 어근들이 추상적 대상의 하위 항목 중에서 ‘색’ 항목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색’ 계열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이 의미적으로 추상적 대상 전반에 다양하게 해당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자. 그렇다면 이러한 양상은 ‘빛’이 ‘색’에 비해서 색채와 관련된 합성 명사의 형성력이 매우 약하여, 일반적인 어근보다는 색채어 어근과의 결합을 통해 그 약한 형성력을 보완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구상물의 경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만, 추상적 대상은 개념화 등의 작용을 통해서만 규약적이고 관습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이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선행 어근의 속성 중에서 색채와 관련된 속성이 부각될 경우, 그 어근과 결합하면 색채 관련의 합성 명사를 형성할 수 있으나, 선행 어근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대상의 속성이 색채와 무관하다면, 그 대상과의 결합을 통해서도 색채 관련 형식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색채 표현으로 간주되는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빛’의 선행 어근이 색채 개념과 유연성이 강하거나(구상물일 경우), 색채 개념 그 자체를 지시해야 하는 것이다(추상적 대상일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색’과 ‘빛’ 모두와 결합하는 어근의 면모에 대해 고찰해 보자. 이는 앞의 두 경우에서 드러난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이 될 것이다.

- (8) ‘색’과 ‘빛’ 모두와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
가지, 구리, 금, 꽃, 노랑, 떡, 바다, 복숭아, 붉은, 살, 석류, 쭉, 연두, 오렌지, 와인, 우유, 은, 장미, 진달래, 진주, 청동, 포도, 풀, 하늘, 호박(광물, 채소), 황금, 황토, 흰

(8)에 제시된 예들의 형태 면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으로 색채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인 ‘노랑’이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색채 형용사의 관형형 ‘붉은’이 발견된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색채어 합성 명사 중에서 ‘노란색’이나 ‘검은빛’과 같은 형식들은 사전에 대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노랑색”이나 “*검정빛”의 형식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국어에서는 통사적으로 ‘명사 명사’의 구성에 있어서 선행 명사가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여 후행 명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구성이 형태론적으로 어휘화한 합성어들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들은 실제적으로는 사전 기술에 있어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랑’이 참여하여 형성된 색채어 합성 명사 ‘노랑색, 노랑빛’이 자료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규범적일 수밖에 없는 사전의 기술이 실제 언중들의 언어 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준다. 이들을 임시어로 보거나, 아니면 규범적 차원에서 발생한 오류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의 존재는 규범과는 차이가 있는, 실제 언어의 사용 양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제 (8)의 어근 성분들을 의미적으로 분류해 보자.

- (9) ‘색’과 ‘빛’ 모두와 결합하여 나타난 어근의 의미적 분류
ㄱ. 추상적 대상 - 5개
① 시간 : 없음
② 공간 : 없음
③ 색 : 노랑, 붉은, 연두, 청동, 황토²³⁾, 흰
④ 수 : 없음

- ⑤ 행위 : 없음
- ⑥ 기타 : 없음
- ㄴ. 구상물 - 24개
 - ① 신체 부위 : 살
 - ② 동물 : 없음
 - ③ 식물 : 꽃, 쭉, 장미, 진달래, 풀
 - ④ 광물 : 구리, 금, 은, 진주, **청동**, 호박, 황금
 - ⑤ 음식 : 가지, 복숭아, 석류, 쭉, 오렌지, 와인, 우유, 포도, 호박
 - ⑥ 신체착용물 : 없음
 - ⑦ 재료 성분 : 없음
 - ⑧ 도구 : 벽
 - ⑨ 기타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 : 바다, 하늘, **황토**

(9)의 양상은 앞의 ‘색’이나 ‘빛’의 경우에서 도출한 우리의 결론을 다시 한 번 지지해준다. 역시 (7)에서 살핀 것과 같이 추상적 대상의 하위 항목에는 ‘색’에 관련된 색채명 어근만이 존재한다. 이는 ‘빛’이 색채어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강한 의미적 유연성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이 현상은 ‘색’ 역시 색채어 합성 명사 형성에 참여할 경우에 색채 표현인 선행 어근과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 결론

본고는 ‘색’과 ‘빛’이 참여하여 형성된 합성 명사들을 대상으로 그 형태와 의미의 일부를 고찰하였다. ‘-색’ 계열과 ‘-빛’ 계열의 합성 명사가 지니는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이제 본론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

첫째, 국어 색채어 합성 명사는 ‘색’이나 ‘빛’이 후행 어근으로 참여한 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본고는 이러한 형식의 합성 명사들을 위주로 색채어이거나 색채와 관련된 합성 명사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기술되었다.

둘째, 후행 어근으로 기능하는 ‘색’과 ‘빛’의 관련성과 차이점에 대해 사전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색채에 관하여서는, ‘색’이 전형적인 개념을 표상하며, ‘빛’은 ‘색’보다는 덜 관여적이고 덜 직접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색’과 ‘빛’이 참여한 합성 명사의 목록을 코퍼스에서 추출하여 잠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색’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 명사의 수보다, ‘빛’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 명사의 수가 훨씬 많았으나, 오히려 색채어나 색채 관련 표현들만을 추려 보았을 때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넷째, 두 합성 명사의 성격을 보다 면밀하게 기술하기 위해 선행 어근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특히 의미적 차원에서 ‘색’보다는 색채 개념과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빛’이, 선행 어근으로 색채 표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반대로 ‘색’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색채 개념을 표상하므로 선행 어근 선택에 있어서 ‘빛’이 보이는 의미적 제약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상의 고찰로 우리는 ‘색’이 색채어 합성 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강력한 형성력을 지니고 있어서, 형성되는 합성 명사의 대부분을 색채어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빛’의 경우는 색채 합성어 형성에 있어서 그 형성력이 약하여, 선행 어근이 색채 개념과 유연성을 지닐 경우에만 색채어 합성 명사를 형성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사실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본고가 관찰한 사항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²⁴⁾ ‘색’과 ‘빛’의 의미적 차이를 보다 확연하게 부

23) ‘청동’과 ‘황토’ 역시 각주 21)과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였음.

각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각 어휘의 결합 양상이나 관형 구성의 통합 양상 등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여, ‘구리빛/*색 피부’, ‘까만색/*빛 피부’, ‘봄빛/*색이 만연하다’ 등의 예에서 보이는 현상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의 논의가 ‘색’과 ‘빛’의 가장 원초적인 차이에만 주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상의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며, 이상의 논의를 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구분관(1998),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한국문화연구소, 15-50.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2005), 병아리색 키위색이 표준색이름으로, 산업자원부 홍보관리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회, 태학사.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편(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회, 태학사.
안효경(1993),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국어연구』 117, 국어연구회.
엄 훈(2000),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체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429-45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병기(2002), 「색채명사의 발달」, 『형태론』 4-2, 박이정, 279-299.
이현희(1985), 「‘흐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누리흐다 류와 엇더흐다 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한신대학교, 221-247.
임홍빈 외(2002),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 컴퓨터와 인문학 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글학회 편(1991),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Cruse, D. A.(2000), *Meaning i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Bauer, L.(1983), *English Word 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

24) 역설적으로 본고는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의 결론이나 결과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음에 착안하여 작성된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A morpho-semantic study on ‘-색’ and ‘-빛’ compound nouns

Lee, Eunsup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into some properties of color compound words in Korean. Especially our research will be focused upon the types of ‘-색’ construction and ‘-빛’ construction. There are som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types of color compound words in the aspects of morphology and semantics.

For a start, we can find out that many color compound nouns contain ‘색’ or ‘빛’ as the second root in the process of word formation. Therefore we intensively argue these types of words.

At second, we observe what are common properties and differences between ‘색’ and ‘빛’ in some dictionaries. Through this observation, we verify the root ‘색’ directly represents the typical conception of ‘color’, on the contrary the root ‘빛’, even though it is related to the conception of ‘color’, indirectly has relevance with it. ‘빛’ will be find out to be insufficiently direct than ‘색’ in the aspect of ‘color’.

At third, we tentatively present some lists of the color compound words which have ‘색’ and ‘빛’ from corpus. And then for a detailed descrip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색’ or ‘빛’, we inspect diverse morphological and semantic properties of first roots which proceed second roots ‘색’ or ‘빛’.

주제어: 색채어, 합성어, 색, 빛, 의미적 유연성, 추상적 대상, 구체적 대상
color words, compound words, color, light, semantic relevance, abstract object, concrete object.